

고려시대 객관 안흥정 재검토

김 명 진*

- I. 머리말
- II. 고려시대 객관(객사)
- III. 안흥정 조영 배경과 혼선
- IV. 해미 안흥정과 태안 안흥정
- V. 맺음말

국문초록

고려시대에 使臣을 迎送하기 위한 客館이 운영되었는데, 그 위치에 대한 논란이 많은 곳이 安興亭이다. 외국 사신들이 오가는 길목 및 개경(개성)에는 그들의 영접 및 숙박을 위한 객관이 있었다. 사신 영접을 위한 객관은 ‘00亭’으로 불리어지기도 하였다.

1074년에 고려가 사행항로를 남선향로로 바꾸고 싶다고 요청하니 송나라도 동의하였다. 그 후 1077년 8월 이후 어느 시점에 안흥정이 조영되었다. 고려 예성강과 송나라 명주로 잇는 정확한 노정은 徐兢이 지은 『선화봉사고려도경』에 남아 있다. 1123년, 그 해상 노정에 송나라 사신을 위한 맞이방 중 하나가 안흥정이었다.

서공은 마도·신진도·정죽리 일대를 무리 섬인 馬島로 인식하였다.

* 경북대학교 사학과 강사 / 22mjk@hanmail.net

이 글에서는 당시 안흥정은 두 개였다고 설정하였다. 두 개의 안흥정 중에서 그 하나는 현 충남 서산시 해미면 산수리 한서대학교 부근에 있었다. 또 다른 하나는 현 충남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및 마도가 포함된 신진도리 일대에 있었다. 그리고 정죽리와 신진도리 일대는 정해현의 월경지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설정을 통해서 안흥정의 혼선에 대한 의문은 해결할 수 있었다.

◆ 주제어

객관(客館), 안흥정, 서궁, 마도, 두 개의 안흥정, 월경지

I. 머리말

고려시대에 使臣을 迎送하기 위한 客館이 운영되었는데, 그 위치에 대한 논란이 많은 곳이 安興亭이다. 고려는 한국사에서 가장 대외적으로 열려있던 나라였다. 특히 바다에 대한 친연성이 깊었다. 고려의 대외 교통로는 육로와 해로였다. 고려 전기에 북방 민족인 거란(요) 및 말갈·여진(북변, 금) 등과 통교할 적에는 주로 육로가 이용되었다. 5대 10국 및 송나라와 통교할 적에 이용된 주 교통로는 해로였다.

고려와 송나라는 거란이 육지를 가로 막은 형세였기에 대체로 해로를 통해 통교하였다. 이에 고려는 使行航路 상에 객관·亭을 두었다. 이 객관·정은 주로 송나라 사신을 接伴하기 위한 것이었다. 확실하게 알려진 대표 예는 群山亭·安興亭·慶源亭 등이었다.¹⁾ 한편, 흑산도에도 비슷한 건물이 있었다.²⁾ 그런가하면 안흥정이 조영되기 전에는 高巒島의 亭이 이용되었다.

이러한 사신 영송 시설 중에서 각 사료에 등장하는 위치가 각각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곳이 있다. 안흥정이 그것인데 해미(정해현) 안흥정과 태안(소태현) 안흥정으로 각기 기록되어 있다.³⁾ 둘 다 그 위치가 현 충청남도 서편에 해당되는 곳이다. 안흥정은 고려 문종 때 조영되었는데 그 위치가 논란이 되어 왔다. 이 시설이 어느 지점에 있었는가에 따라서 사행 항로가 달라지기 때문에 나름 중요한 문제라 하겠다. 이는 더 나아가 당시 뱃길을 추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운로 추정도 도움이 되리라 여겨진다.

안흥정의 현 위치에 대해서 마도(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신진

-
- 1) 고려와 송나라 간의 사행항로 및 관련 시설에 대한 내용은 『선화봉사고려도경』이 자세하므로 이를 적극 참고하고자 한다.
 - 2) 흑산도에 있었던 시설은 상인들이 이용했는지, 기상 상황에 따라 사신들도 사용했는지 그 여부는 불명확하다. 서공이 사행 할 적에는 흑산도 시설을 이용하지 않았다(『선화봉사고려도경』 권35, 해도2, 흑산).
 - 3) 이 글에서는 두 안흥정을 현 소속 행정구역 이름을 사용하여 편의상 ‘해미 안흥정’과 ‘태안 안흥정’으로 표기하고자 한다.

도(신진도리), 안흥성 일대(근흥면 정죽리) 등으로 비정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⁴⁾ 이는 사료마다 모호한 위치를 남겨놓았기 때문이다. 또한 확실한 또는 추정 가능한 명문이 새겨진 고고학 자료도 출토되지 않아서 더욱 그러하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모호한 사료들을 검토하고 현지리적 상황 등을 대조하면서 살펴보려 한다. 부족한 사료의 내용은 현지답사 경험 등을 참고하면서 퍼즐을 맞추어 보고 싶다.

먼저 안흥정에 대한 궁금함을 풀기 위해 고려시대 객관(객사)에 대한 기본 이해가 요구된다. 다음은 안흥정 조영 배경을 알아보면서 위치에 대한 혼선 정리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해미 안흥정과 태안 안흥정을 비교 검토하여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⁵⁾

II. 고려시대 객관(객사)

안흥정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고려시대 객관 및 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제기된다. 客舍는 고려와 조선시대에 각 고을 및 도성에 둔 일종의 官舍였다. 흔히 이 건물은 客館이라 칭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고려시대 객사와 객관은 구별이 있었던 듯하다. 지방의 각 고을 객사는 대개 공적인 업무를 본 국내 관리들이 이용하던 곳이었다. 외국 사신들이 오가는 길목 및 개경(송악, 개성)에는 그들의 영접 및 숙박을 위한 客館·亭이 있었다. 외국 사신을 위한 객관은 당연히 더 좋은 시설에 화려하게 만들어져 있었을 터이다. 고려시대 객사에 관한 문헌기록은 초기

4) 안흥정의 위치에 대한 성과 소개 및 비판은 다음 연구가 참고된다. 윤용혁, 「태안 안흥정의 위치에 대한 논의」, 『충남, 내포의 역사와 바다』, 서경문화사, 2016 ; 문경호, 「1123년 서금의 고려 향로에 대한 재검토 - 夾界山 ~ 馬島 安興亭 구간을 중심으로」, 『역사와 담론』78, 2016.

5) 이 글은 <<서산 해양문화유산 자원의 보존과 활용 - 해미 안흥정을 중심으로>> 학술대회(주최: 서산문화원·서산향토문화연구소, 일시: 2018년 10월 30일, 장소: 충남 서산문화원)에서 필자가 발표한 「고려시대 객관과 서산 해미 안흥정」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당시 토론자였던 오석민선생님(지역문화연구소)의 좋은 가르침이 있었다.

부터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가) 현종(顯宗) 9년(1018)에 정하기를, “무릇 주·부·군·현은, 1,000丁 이상이면 호장 8명, 부호장 4명, 병정·부병정 각 2명, 창정·부창정 각 2명, 사 20명, 병사·창사 각 10명, 공수사·식록사 각 6명, 客舍史·약점사·사옥사 각 4명씩 둔다. 500정 이상이면 호장 7명, 부호장 2명, 병정·부병정·창정·부창정 각 2명, 사 14명, 병사·창사 각 8명, 공수사·식록사 각 4명, 객사사·약점사·사옥사 각 2명씩 둔다. 300정 이상이면 호장 5명, 부호장·병정·창정·부병정·부창정 각 2명, 사 10명, 병사·창사 각 6명, 공수사·식록사 각 4명, 객사사·약점사·사옥사 각 2명씩 둔다. 100정 이하이면 호장 4명, 부호장·병정·창정·부병정·부창정 각 1명, 사 6명, 병사·창사 각 4명, 공수사·식록사 각 3명, 객사사·약점사 각 1명씩 둔다. 동·서의 모든 방어사·진장·현령관은, 1,000정 이상이면 호장 6명, 부호장·병정·창정·부병정·부창정 각 2명, 사 10명, 병사·창사 각 6명, 공수사 각 4명, 객사사·약점사·사옥사 각 2명씩 둔다. 100정 이상이면 호장 4명, 부호장 이하는 모두 1,000정 이상의 주·현과 동일하다. 100정 이하이면 호장 2명, 부호장·병정·창정·부병정·부창정 각 1명, 사 6명, 병사·창사 각 4명, 공수사·객사사·약점사·사옥사 각 2명씩 둔다.”라고 하였다.⁶⁾

위 사료는 1018년인 현종 9년에 鄉職의 인원수와 직제를 정한 내용이다. 고려 태조 왕건은 918년 6월에 건국하였다.⁷⁾ 따라서 사료 가)는 건국 후 정확히 100년 후의 일이었다. 여기에서 이 글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客舍史이다. 객사사는 客舍를 관리하던 하급관리인 향리의 하

6) 『고려사』 권75, 지29, 선거3, 전주, 향직, “顯宗九年 定 凡州府郡縣 千丁以上 戶長八人 副戶長四人 兵正副兵正各二人 倉正副倉正各二人 史二十人 兵倉史各十人 公須食祿史各六人 客舍藥店司獄史各四人 五百丁以上 戶長七人 副戶長二人 兵正副兵正倉正副倉正各二人 史十四人 兵倉史各八人 公須食祿史各四人 客倉藥店司獄史各二人 三百丁以上 戶長五人 副戶長兵倉正副兵倉正各二人 史十人 兵倉史各六人 公須食祿史各四人 客舍藥店司獄史各二人 百丁以下 戶長四人 副戶長兵倉正副兵倉正各一人 史六人 兵倉史各四人 公須食祿史各三人 客舍藥店史各一人 東西諸防禦使鎮將縣令官 千丁以上 戶長六人 副戶長兵倉正副兵倉正各二人 史十人 兵倉史各六人 公須史各四人 客舍藥店司獄史各二人 百丁以上 戶長四人 副戶長以下 並同千丁以上州縣 百丁以下 戶長二人 副戶長兵倉正副兵倉正各一人 史六人 兵倉史各四人 公須客舍藥店司獄史各二人”.

7)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원년 하6월 병진.

나였다. 고려 전기부터 각 고을에 객사가 있었으며 그 관리는 객사사라 하였다.⁸⁾

전국 주부군현 중에서 1,000정(丁) 이상의 큰 고을에서는 객사사가 4명이었다. 100정 이하의 제일 작은 고을은 객사사를 1명만 두었다. 하지만 동·서의 모든 방어사·진장·현령관에 속한 객사사 숫자는 약간 차이가 있었다. 아마도 객사는 主縣뿐만 아니라 屬縣까지도 건립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00정 이하의 군현에도 객사사가 배정되어 있기에 그리 판단된다.

나) (1230년 8월에) 최향이 무뢰배들을 모아서 난을 일으켰는데, …… 客舍의 門樓에 올라가 징과 북을 치며 고함을 지르니, 주인(홍주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부들부들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⁹⁾

사료 나)는 1230년(고종 17년) 8월에 벌어진 일이었다.¹⁰⁾ 최충헌 사후에 그 큰 아들 최이(최우)가 실권을 장악하였는데, 둘째 아들인 최향이 반기를 들었다. 이로 인하여 최향은 유배를 갔는데 홍주(충남 홍성)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이 기록 중에 객사의 문루가 눈에 띈다. 지방인 홍주에 객사가 있었는데 문루도 있으니 그 전체 형태는 이러했을 것이다. 객사 건물이 있고 그 주위에 담이 있으며 출입구에 문 및 문루가 있었다고 이해된다. 이를 통해 고려시대 지방 객사는 대체로 조선시대와 비슷했다고 판단된다. 이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한 관리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국내용이었다. 이에 비해 객관은 좀 달랐다.

다)-① 이 해에 [태조 14년(931)] (해당관서) 유사에게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리었다. “북변 사람들은 사람의 탈을 쓰고도 짐승의 심리를 가진 자들로서 주리

8) 한편, 객사사가 객사 관리뿐만 아니라 무언가 다른 직무도 병행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추정된다.

9) 『고려사』 권129, 열전42, 반역3, 최충헌 부 최이, “珣聚群不逞作亂 …… 登客舍門樓 擊鈺鼓呼噪 州人皆會 震慄失措”.

10) 『고려사절요』 권16, 고종안효대왕3, 경인 17년 8월.

면 오고 배부르면 가며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염치를 잊어버리니 지금은 비록 우리에게 복종하고 있으나 복종과 배반이 대증없다. 그들이 지나다니는 州鎮들에서는 성 바깥에 館을 지어 놓고 접대하게 할 것이다.”¹¹⁾

다)-② 예종 …… 11년(1116) 윤정월 신축일에 송나라 상인의 客館(客館)에 불이 났다.¹²⁾

태조 왕건이 통일전쟁을 수행할 적에 고려는 견훤의 후백제(당시 국호는 백제)하고만 전선을 유지했던 것이 아니었다. 왕건은 북방 경계도 허투루 하지 않았다. 그는 북변(제변, 변인, 말갈)을 상대로 포용과 경계를 하였다. 그러면서 옛 고구려 영역 회복을 위하여 그는 영역을 북쪽으로 조금씩 북상해 나갔다. 다)-①에 의하면, 북변 사람들을 맞이할 적에 그들은 위험 요소가 많은 부류이므로 성 안으로 들이지 말고 밖에서 접대하라고 왕건은 유사에게 명을 내렸다. 여기에서 築館의 館은 객관을 이르는 것이다. 다)-②에 의하면, 그 관이 객관이라고 명확하게 지칭되고 있다.

이처럼 고려 전기부터 객사와 객관은 함께 운영되었다. 더 나아가 고려 이전 고대부터 있었거나 아니면 비슷한 용도의 건물이 있었을 가능성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사료 다)-①을 보면, 북변인은 사신이라기 보다는 방문(조공 포함) 또는 상거래 내방 정도의 목적으로 고려에 오거나 지나가는 사람 등으로 이해된다. 다)-②가 특이한데 송나라 사신이 아닌 상인(宋商)이 객관에 머무르다 화재가 발생했다고 되어 있다.

이때의 宋商은 개경 객관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아 단순한 장사치가 아니었다. 고려에 큰 이익을 주거나, 일부 사신의 역할도 수행했던 상인이라고 여겨진다. 객관은 외국 사신 및 외국인을 위한 건물이었지만 그 쓰임새는 조금씩 달랐다. 고려 수도 개경에서 송나라 사신을 위한 객관

11)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2, 14년, “是歲 詔有司曰 北蕃之人 人面獸心 飢來飽去 見利忘恥 今雖服事 向背無常 宜令所過州鎮 築館城外 待之”. 『고려사절요』 권1, 태조 신성대왕, 신묘 14년조에도 같은 내용이 있다.

12) 『고려사』 권53, 지7, 오행1,五行二曰 火, “睿宗 …… 十一年閏正月辛丑 宋商客館 火”.

은 順天館이었다. 迎恩館과 仁恩館(仙賓館)은 거란(요) 사신을 위한 객관이었다. 迎仙館과 靈隱館은 여진(금)을 위한 객관이었다. 그리고 중국 상인들을 위한 객관으로는 淸州館·忠州館·四店館·利賓館 등이 있었다.¹³⁾

이상 몇 가지 사례를 검토해 보니 대체로 객사와 객관은 비슷한 성격의 공공건물인 듯 하지만 객사는 주로 국내 관리들을 위한 곳이고, 객관은 국외 사신 및 그에 준하는 이들을 위한 곳으로 생각된다. 그런가하면 외국 사신의 迎送을 위한 亭도 있었는데, 이는 다음 장에서 기술하려 한다. 안흥정을 이해하기 위해 고려시대 객사와 객관을 간단히 먼저 살펴 보았다.

Ⅲ. 안흥정 조영 배경과 혼선

고려는 외국 및 외세와 통교함에 육로와 해로를 이용하였다. 각 나라 별로 使節이 이용한 교통수단이 달랐다. 거란(요)·여진(북변, 제번, 번인, 말갈, 금) 등 북방민족과 고려가 통교할 적에 주 교통로는 육로였다. 5대 10국 및 송나라가 고려와 통교할 적에는 해로가 주로 이용되었다. 그런데 고려 전기에 육로는 한정되어 있었고 해로가 빈번하게 제 역할을 하였다. 뒤에 기술하지만 高巒島의 亭과 安興亭은 남쪽으로 통하는 해로 이용 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외국 사신 맞이 시설(이하 ‘맞이방’으로 칭함) 중 하나였다.

고려는 건국 초기에 거란과 교류함에 육로를 간헐적으로 이용하였다. 태조 왕건이 통일을 완성한 후, 942년(태조 25) 겨울 10월에 거란이 사신을 통해 낙타 50필을 고려에 선물로 보내왔다. 왕건은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킨 무도한 나라라 하여 사신 30명은 바다 섬으로 유배 보내고, 낙타는 만부교 아래 매어 두니 다 굶어 죽었다고 한다.¹⁴⁾ 관련 사료 들

13) 『선화봉사고려도경』 권27, 관사, 순천관·객관.

을 살펴보면(『고려사』, 『고려사절요』 등), 왕건은 대체로 중원의 왕조와는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북방 거란과는 적대적인 모양새를 취하였다.

북방 말갈계통인 북변은 경계를 하면서도 포용적 자세로 대하였다.¹⁴⁾ 일본과는 특별한 관계는 없었는데 적대적이지도 우호적이지도 않았다. 당시 중원은 5대 10국이라는 분열의 시대였다. 그래도 이들 나라와 왕건의 고려는 우호적 관계 속에서 교류하였다. 그 교류는 해로를 통한 것이었는데 정확한 路程은 알 수 없지만 간단한 추정은 가능하다. 고려 건국 초기에 중국과 통교한 해상항로는 주로 2가지 노선이 있었다. 그 하나는 수도 개경(개성) 인근인 예성강 일대에서 산동반도로 향하는 북선향로이고, 또 다른 하나는 長江(揚子江)으로 향하는 남선향로가 있었다.¹⁵⁾ 태조 왕건이 건국한 후에 중요한 使行은 주로 북선향로가 이용되었다.

『구오대사』에 의하면, 938년 8월에 “靑州(산동반도 청주)에서 王建立이 아뢰기를, ‘고려국의 宿衛 質子 王仁翟이 고향으로 돌아서 돌아가기를 비나이다.’ 하니 그리 하도록 하였다”¹⁶⁾고 한다. 『고려사』에 의하면, 940년(태조 23) 晉(後晉)에서 우리의 질자 왕인적을 돌려보냈다고 한다.¹⁷⁾ 왕인적이 938년에 고려로 돌아왔는지 940년에 돌아왔는지, 아니면 938년에 허락을 받고 940년에 돌아왔는지는 두 기록에 차이가 있으므로 명확하지 않다.¹⁸⁾ 이때 왕인적이 후진에서 돌아온 노정은 청주

14)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2, 25년 동10월.

15) 당시 고려와 북변(제번)과의 관계는, 김명진, 「太祖王建의 一利川戰鬪와 諸蕃勁騎」, 『한국중세사연구』25, 2008 참고.

16) 이진한, 「高麗 太祖代 對中國 海上航路와 外交・貿易」, 『한국중세사연구』33, 2012, 9쪽.

17) 『구오대사』 권77, 진서3, 고조기3, 천복 3년 8월 무술, “靑州 王建立奏 高麗國 宿衛 質子王仁翟 乞放歸鄉里 從之”. 후진의 왕건립은 靑州節度使를 지냈던 인물이었다(『구오대사』 권91, 진서17, 열전6, 왕건립).

18)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2, 23년 ; 『고려사절요』 권1, 태조신성대왕, 23년, “晉 歸我質子王仁翟”.

19)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質子政策에 대한 검토」, 『한국중세사연구』35, 2013 : 『통일과 전쟁, 고려 태조 왕건』, 혜안, 2018, 87쪽.

를 품고 있는 산동반도에서 예성강쪽으로 항해한 북선향로였다. 북선향로로 왕래할 적에 중국 사신을 맞이한 고려의 맞이방은 예성강쪽에만 있어도 충분하였다. 물론 수도인 개경에는 사신을 위한 객관이 있었을 터이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중원의 주인은 송나라가 차지하였고, 처음에는 사행항로에 큰 변화가 없었으나 11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변화가 왔다. 남쪽에 있는 明州(절강성 영파)가 고려와 송나라 사신 왕래의 새로운 경유지로 부상한 것이다.

라) 과거에 고려인(사신)들이 오갈 적에 모두 등주를 경유하였는데, (희령) 7년(1074)에 그의 신하 金良鑑을 보내와 아뢰기를, “거란을 멀리하고 싶으니 길을 바꾸어 명주를 경유하여 대궐에 이르고 싶나이다.” 하니, 그리 하도록 하였다.²⁰⁾

1074년(고려 문종 28)에 고려가 사행항로를 남선향로로 바꾸고 싶다고 요청하니 송나라에서도 동의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송나라가 쉽게 동의한 것으로 보여 지므로 당시 거란의 압박이 고려와 송나라 양국 교류에 영향을 크게 미쳤음이 짐작된다.²¹⁾ 앞서 거란이 993년(성종 12), 1010년(현종 1), 1018년(현종 9) 등 3차에 걸쳐 고려에 침입하자, 양국은 전쟁을 한 바 있다. 따라서 사료 라)는 그 연장선에서 가능성 있는 사실이었다.

이렇게 해서 정식 사행항로가 남선향로(예성강에서 명주행)로 바뀌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사행항로 상에 사신 맞이방인 정(객관)들이 조영되었던 것이다.²²⁾ 남선향로를 본격적으로 이용하기 이전 사행은 모두

20) 『송사』 권487, 열전246, 외국3, 고려, 희령 7년, “往時 高麗人往反皆自登州 七年遣其臣金良鑑來言 欲遠契丹 乞改塗由明州詣闕 從之”.

21) 한편, 사료 라)와 관련 있는 내용이 『고려사』의 1073년 8월 기록에서 발견된다(『고려사』 권9, 세가9, 문종3, 27년 8월 정해; 신안식, 「고려전기의 麗宋 교통로와 교역」, 『한국중세사연구』33, 2012, 55쪽). 이는 김양감 등이 1073년 8월에 고려에서 출발하여 1074년 초 쯤에 송나라 조정으로 들어가 문종의 뜻을 전달한 것이 아닐까 한다.

22) 이 정들은 1074년의 남선향로 이전에 이미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는 고려 통일전

예성강에서 산동반도의 등주로 건너갔다고 하였다. 예성강과 명주를 잇는 정확한 노정은 고려 측 자료에는 남아있지 않고 송나라가 남긴 자료만 하나 전해지고 있다. 『선화봉사고려도경』(이하 『고려도경』으로 칭함)이 그것이다. 따라서 당시 사행항로에 대한 『고려도경』의 기록은 매우 유용한 것이다.

송 휘종은 고려에 대규모 사신단(國信使)을 보냈다. 이 사신단에 포함된 사람이 徐兢이었다. 서긍 일행이 명주에서 출발한 날짜는 1123년(고려 인종 1) 5월 16일이었다. 神舟 2척과 客舟 6척, 모두 8척의 대형 선박으로 꾸려진 선단이 항해한 주요 노정은 다음과 같다(3월 14일, 송나라 수도 개봉 출발).

명주(5월 16일) ⇨ 심가문 ⇨ 해려초(5월 28일, 정식으로 예를 갖추어 출발) ⇨ 협계산(6월 2일, 고려 영역으로 들어섬) ⇨ 흑산 ⇨ 죽도 ⇨ 고섬섬 ⇨ 군산도 ⇨ 마도(6월 8일) ⇨ 자연도 ⇨ 합굴 ⇨ 용굴 ⇨ 예성항(6월 12일) 도착²³⁾

고려 측 영역 안 사행항로는 협계산에서부터 예성강의 예성항까지였다. 그 해상 노정에 송나라 사신을 위한 맞이방이 몇 군데 있었다. 그 대표적 맞이방은 亭이라 했는데 3군데 있었다. 그 셋은 群山亭, 安興亭, 慶源亭이었다. 그리고 흑산도에도 관사가 있었는데 그 정확한 명칭 및

쟁기 이래 중원 남쪽과의 교류 시에 있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 하겠다. 따라서 이전에 있던 시설을 1074년 이후에 수리 후 사용했을 가능성과 1074년 이후에 새로 조성했을 가능성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23) 『선화봉사고려도경』, 海道. 서긍의 사행항로에 대한 이해는 다음 연구가 참고된다. 森平雅彦, 「高麗における宋使船の寄港地‘馬島’の位置をめぐる - 文獻と現地の照合による麗宋間航路研究序説」, 『朝鮮學報』207, 2008; 윤용혁, 「고려시대 서해 연안해로의 객관과 안흥정」, 『역사와 경계』74, 2010; 문경호, 「1123년 徐兢의 고려항로와 慶源亭」, 『한국중세사연구』28, 2010; 문경호, 앞의 논문, 2016.

성격은 알 수 없다. 아울러 사신단이 예성항에 도착하면 그곳에 碧瀾亭이 있었다. 이 중에서 그 위치에 대한 논란 및 혼돈이 많은 곳은 안흥정이었다. 안흥정이 있기 전에 그 역할을 했던 곳은 고만도에 있었던 정이었다. 안흥정은 현 태안군 근흥면과 현 서산시 해미면에 있었다고 한다. 두 개의 안흥정이 있었다고 하니 연구자들의 혼선은 당연한 것이었다. 안흥정은 사행항로가 남선항로로 바뀌면서 조영되었다. 좀 더 정확히 가려내면, 고만도에 정이 먼저 있었고 그 뒤에 이를 대신한 안흥정이 들어섰다.

그런데 고려시대에 지명 및 건물의 이름이 두 개인 경우가 여러 사례 발견된다. 고려 전기에 진례군은 전라지역 進禮郡(충남 금산군)²⁴⁾과 경상지역 進禮郡(進禮城, 경남 김해시 進禮面)²⁵⁾이 있었다. 大木郡도 두 지역이 존재하였다. 927년 겨울 10월에 등장한 大木郡²⁶⁾은 현 경북 칠곡군 若木面 일대에 있었다. 이곳은 본래 신라의 大木縣이라 하였다.²⁷⁾ 이 대목현이 고려 통일전쟁기에 대목군으로 불리어졌었다. 또 하나의 대목군은 현 충남 천안시 동남구 木川邑 일대에 있었다. 이 대목군은 원래 백제 때 大木岳郡인데, 신라 경덕왕이 大麓郡으로 이름을 고쳤다고 한다.²⁸⁾ 고려 통일전쟁기에는 백제 때 大木岳郡에서 ‘岳’자가 생략되어 大木郡으로 불리었다.²⁹⁾

충청도의 대표 젓줄인 강은 錦江이다. 금강도 고려시대에는 두 군데가 있었다. 전라도 錦江(현 영산강)³⁰⁾과 충청도 錦江³¹⁾이 있었는데, 전라도

24) 『고려사』 권57, 지11, 지리2, 전라도, 進禮縣, “進禮郡”;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3, 전라도, 금산군, 건치연혁, “進禮郡”.

25)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3년 동10월, “進禮郡”;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2, 경상도, 김해도호부, 고적, 進禮城.

26)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10년 동10월.

27)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7, 경상도, 인동현, 건치연혁, 속현, 약목현.

28) 『삼국사기』 권36, 지리3, 웅주, 대륙군.

29) 김명진, 「고려 태조대 천안지역의 사상적 동향과 사찰의 역할」, 『한국중세사연구』48, 2017, 17쪽 주32.

30)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5, 전라도, 나주목, 산천, 양암·유유 고려 정도전.

31)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5, 충청도, 옥천군, 산천, 적등진.

금강은 뒤에 영산강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고려 왕실의 신성성이 강조된 聖居山도 두 군데이다. “고을 동쪽 21리에 있다. 고려 태조(왕건)가 일찍이 고을 서쪽 愁歇院(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수혈리)에 거동했다가 동쪽을 바라보니 산 위에 오색구름이 있음에, 이는 神이 있는 것이라 하여 제사지내고 성거산(579m)이라 했다”고 한다.³²⁾ 고려 수도인 개경(개성)근처에도 성거산이 있는데, “구룡산, 國祖 聖骨將軍의 사당이 있다. 그러므로 일명 聖居山이라고도 한다”³³⁾라는 내력을 가지고 있다.

亭 이름 또한 그러한 예가 있었다. 먼저 황주(황해도 황주) 동선역에 碧波亭이 있었다.³⁴⁾ 그리고 1271년(원종 12) 5월, 진도 벽파정 일대에서 고려 중앙정부 관군과 삼별초 간에 전투가 벌어졌다.³⁵⁾ 이때의 碧波亭(전남 진도군 고군면 벽파리)은 진도에 있었다. 예성강 기슭에 있었던 碧瀾亭도 두 개 있었다. 左碧瀾亭과 右碧瀾亭이 그것이다.³⁶⁾

그런가하면 종실 중에서도 동명이인이 있었다. 고려 후기에 광덕산의 개천사(충남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가 종실인 王沔이 시주하여 다시 창건되었다. 그는 문종의 아들인 조선공 왕도의 증손자였다. 그리고 그는 의종의 딸인 화순공주와 혼인하였다. 그는 문종의 4대손이자, 인종의 외손자이고, 의종의 사위(駙馬)였다. 그런데 문종의 손자 중에도 王沔(부여 후 왕수의 아들)이 있었다.³⁷⁾ 이처럼 가까운 왕실 혈족 중에도 같은 이름이 있었던 것이다.³⁸⁾

따라서 고려시대에 같은 이름인 안흥정이 두 개 있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었다. 다음 장에서 기술하지만 현 서산시 해미면과 태안군 근흥면 마도에 각각 안흥정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해미현(해미면)은 고려시

32)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6, 충청도, 직산현, 산천, 성거산.

33) 『고려사』 권56, 지10, 지리1, 우봉군.

34) 『고려사』 권18, 세가18, 의종2, 22년 3월 임오. 1168년 3월에 의종이 개경(개성)에서 서경(평양)으로 행차하면서 중간에 연회를 연 장소가 황주 동선역 벽파정이었다.

35) 『고려사』 권27, 세가27, 원종3, 12년 5월 정축.

36) 『선화봉사고려도경』 권27, 관사, 벽란정.

37) 『고려사』 권90, 열전3, 종실1, 문종 13자.

38) 김명진, 「고려시대 천안지역의 왕실불교」, 『국학연구』34, 2017, 431~432쪽.

대 정해현과 여미현이 조선시대에 합쳐져서 탄생된 행정구역이었다.³⁹⁾ 그러므로 정해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이 글의 나머지가 원만하게 전개될 것이다.

고려 통일전쟁기에 마지막 관세를 결정지은 전투가 934년 9월의 운주전투(충남 홍성)였다.⁴⁰⁾ 이즈음에 서산과 태안 쪽에서 가장 주목받은 곳은 貞海縣(충남 서산시 해미면)이었다. “(정해현은) 세간에 전하기를 태조 때에 몽웅역의 역리였던 韓氏 성을 가진 자가 큰 공로가 있어 대광의 호를 내리고, 고구현의 땅을 나누어 이 현을 설치하여 그의 관향으로 삼게 하였다”고 한다.⁴¹⁾ 이처럼 그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은 채 성씨와 업적만 간단히 기술되어 있다. 당시 운주와 인접한 몽웅역(충남 서산시 해미면 동암리)⁴²⁾의 한씨가 큰 공로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궁금하다.

원래 지위가 높지 않고 특별히 지역세력(호족)이라고 내세울만한 인물도 아닌 사람이 한씨였다. 그에게 수여된 대광이라는 관계는 당시 지역민에게 주어진 것으로서는 최고의 대우에 해당되었다. 왕건이 명주(강원도 강릉)의 실력자로 잘 알려진 왕순식에게 내린 관계가 대광이었다.⁴³⁾ 한씨는 왕순식과 동급의 대광 관계를 받았던 것이다. 서산과 태안 일대에서 대광이라는 관계를 받을 정도로 큰 공을 세웠다면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 바로 인근에서 벌어진 운주전투이다. 한씨가 운주전투 시 세웠을 큰 공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軍令 전달과 軍需 보급은 물론이고, 적에 대한 정탐·진군로에 대한 안내·기병들의

39)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0, 충청도, 해미현, 건치연혁.

40) 운주전투에 대해서는,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운주전투와 공준의 역할」, 『軍史』 96, 2015 참고.

41) 『고려사』 권56, 지10, 지리1, 홍주, 정해현, “世傳 太祖時 夢熊驛吏韓姓者 有大功 賜號太巨 割高丘縣地 置縣 爲其鄉貫”.

42) 『한국지명총람』 4(충남편 하), 한글학회, 1974, 85쪽. 현지답사를 해보니 토박이들은 동암리의 원래 이름을 역말(역마을)이라고 구술해 주었다. 그리고 이 마을이 예전에 몽웅역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제보자 : 오관복(남 78세, 해주읍씨, 동암리 토박이, 2015년 8월 18일 동암리 마을에서 구술) 외 4인.

43) 『고려사』 권92, 열전5, 왕순식.

말먹이 보충 등이 그가 했을 공로가 아닐까 한다.⁴⁴⁾

이처럼 고려 태조 왕건이 통일을 완성함에 한씨의 공이 컸으며 이로 인해 정해현의 위세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해현의 내력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아래에서 거론할 안흥정 위치에 대한 혼란스러움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IV. 해미 안흥정과 태안 안흥정

고려와 송이 通交함에 사행항로 상에 사신들의 영송을 위해 亭(객관)을 두었다.⁴⁵⁾ 그 정을 조영함에 왕의 재가를 받았다. 앞에서 1074년(고려 문종 28)에 남선향로를 개설하기로 고려와 송나라가 견해를 같이 하였다고 기술하였다. 고려는 남선향로 상에 사신 영송을 위한 정을 조영했는데 그 중 안흥정 조영에 관한 내용이 남아 있다.

마) (1077년 8월에) 羅州道 祭告使인 大府少卿 李唐鑑이 아뢰기를, “중국(송)의 사신들이 왕래하는 데에 高巒島의 亭은 수로에서 점점 멀어짐에(稍隔) 배를 정박하기가 불편합니다. 청컨대 洪州 管轄의 貞海縣 땅에 정 하나를 설치하여 맞이하고 보내는 장소로 삼게 하시옵소서.” 하니, 이를 따라 制書를 내렸다. 亭의 이름을 安興이라 하였다.⁴⁶⁾

위 사료 마)에 의하면, 대부소경⁴⁷⁾ 이당감이 나주도 제고사의 임무를

44)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아산만 일대 공략과정 검토」, 『지역과 역사』30, 2012, 26~27쪽 참고.

45) 이러한 정을 亭館이라 명명한 견해가 참고된다(문경호, 「1123년 徐兢의 고려 항로와 慶源亭」, 『한국중세사연구』28, 2010, 487쪽).

46) 『고려사』 권9, 세가9, 문종3, 31년 8월, “羅州道祭告使大府少卿李唐鑑奏 中朝使命往來 高巒島亭 稍隔水路 船泊不便 請於洪州管下貞海縣地 創置一亭 以爲迎送之所 制從之 名亭爲安興”.

47) 대부소경은 大府寺의 종4품 少卿이다(최정환, 『譯註『高麗史』百官志』, 경인문화사, 2006, 265쪽).

수행하고 난 후에 국왕 문종에게 보고하였다. 이때가 1077년(문종 31) 8월이었다. 제고사는 봄가을로 지방 名山에 지내는 제사를 관장하도록 파견된 관리였다.⁴⁸⁾ 이당감은 나주 일대(현 전남지역)의 제고사 임무를 수행함에 뱃길로 다녀온 듯하다. 그런데 그는 제사뿐만 아니라 나주 일대와 관련된 여러 형편을 살펴보라는 문종의 命을 받았음이 분명하였다. 송나라 사신이 고려에 뱃길로 오려면 나주 일대의 바다와 섬 등을 경유하므로 이를 전반적으로 검토했던 것이다. 이는 사료 라)의 연장선에서 사료 마)의 행위가 있었다고 읽혀진다. 문종은 고려와 송나라가 통교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면밀히 살피고 있었던 것이다.

이당감이 살펴보니, 다른 문제는 없는데 고만도의 정만 불편하다고 하였다. 고만도는 천수만 입구 쪽 어느 섬(또는 지역)인 것은 확실하나 그 위치 또한 여러 견해가 있다.⁴⁹⁾ 이곳에 사신 맞이방인 정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정의 이름이 고만도정인 듯하지만 섬 ‘島’字까지 맞이방 이름으로 한 예가 없었다. 그러므로 사료 마)의 정은 고만도에 있었던 정인데 그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이해된다.⁵⁰⁾ 물론 그 이름을 군산정의 예에 따라 ‘고만정’이라고 했을 가능성은 있다. 송과의 남선향로가 처음 개척될 적에 천수만 입구 쪽에서 사용된 정은 고만도의 정이었다.

이 고만도의 정 대신에 정해현의 땅에 새로운 정을 조영하자고 이당감은 문종에게 보고하였다. 고만도의 정이 수로에서 점점 멀어짐에(稍隔) 배를 정박하기가 불편하다고 하였다. 이는 고만도의 정 근처 정박처에 물길 또는 갯벌의 변화로 인하여 무언가 선박 접근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하겠다. 그래서 이당감은 정해현의 땅에 새로운 정을 조영하자고 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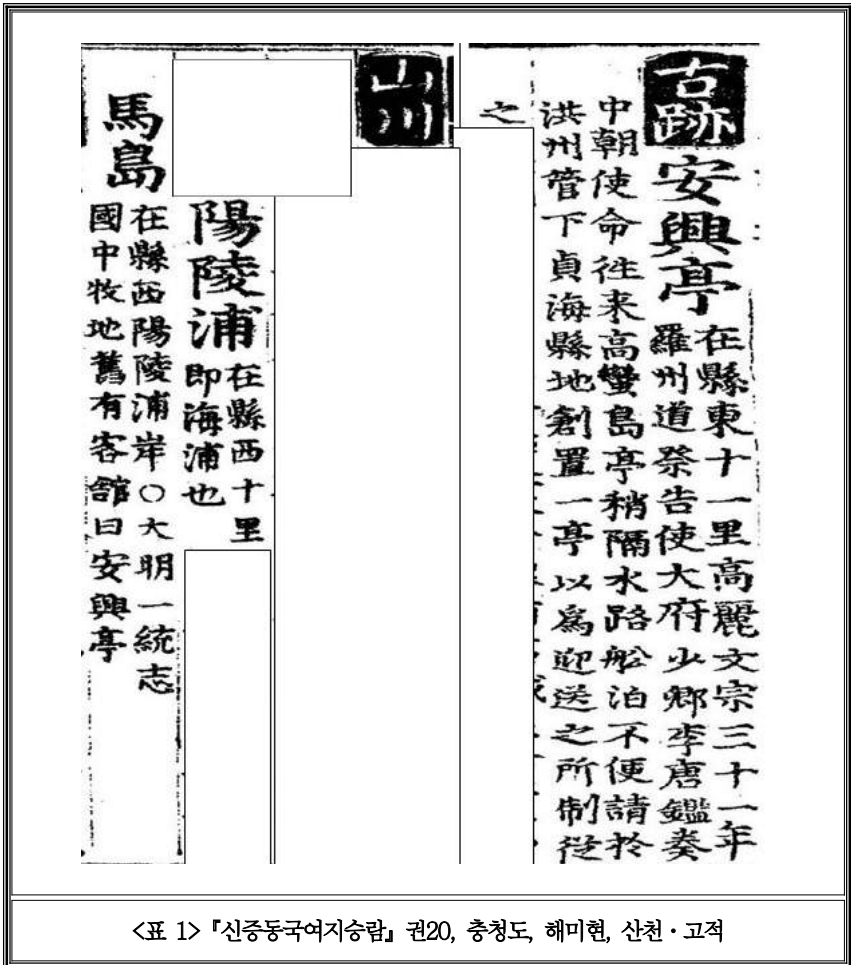
여기에서 정해현의 땅이란 그 越境地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조선전기에 만들어진 지리지이다. 이 책은 조선전기의 기

48) 『고려사』 권8, 세가8, 문종2, 18년 2월 계유.

49) 고만도의 위치에 대한 여러 견해는, 윤용혁, 『충남, 내포의 역사와 바다』, 서경문화사, 2016, 135~137쪽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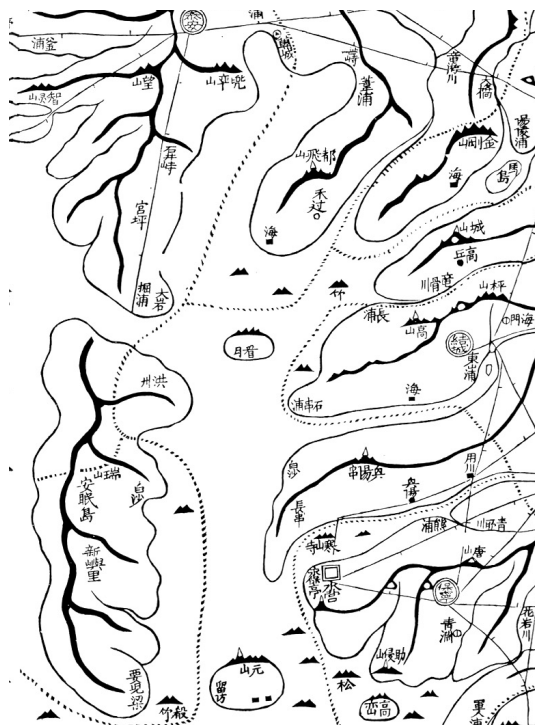
50) 윤용혁, 앞의 논문, 2010, 42쪽 주32.

록이므로 당연히 직전 왕조인 고려시대에 관한 내용 및 사정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 또한 오류가 많은 지리지는 아니었다. 그런데 안흥정에 관한 기사만큼은 모호한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표 1>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이 글과 관련된 부분만 선택하여

제시한 것이다. 산천조를 먼저 살펴보면, 陽陵浦는 해미현 치소에서 서쪽으로 십리에 있는 바다의 포구라 하였다. 일반적으로 그 정도 거리에 있는 良林里(충남 서산시 해미면) 일대가 양릉포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마도는 현 서쪽에 있는 양릉포 기슭에 있는데, 『대명일통지』에 나라의 중심에 있는 목장이고 옛날 안흥정이라는 객관이 있었다고 한다. 지형적 형편으로 보아 해미면 관내인 기지리와 석포리 사이에 있는 나지막한 구릉이 당시에 섬이었을 것이다. 이곳은 해미천 하류인데 천수만에 접해 있다. 『대동여지도』에서도 그 지점에 양릉포와 마도가 자리 잡고 있다 (<도 1>에서 우측 상단).



<도 1> 『대동여지도』, 해미·안면도 부근

해미천 하류의 양릉포와 마도는 믿을 수 있는 지명과 위치라고 생각된다. 馬島라는 섬은 말을 키우던 또는 말과 같은 모양인 섬이기에 전국 여러 곳에 있다. 다만 해미천 하류의 마도는 실제 있었던 섬이지만 이곳에 안흥정이 있었다는 것은 신뢰할 수 없다. 지리적으로 항로 상 송나라 사신이 천수만 북쪽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와서 이곳에 머문 다음에 다시 천수만 남쪽으로 내려간 후에 서해 밖으로 나가 북상한다는 것은 모순된 항로이기 때문이다.⁵¹⁾

아마도 이 안흥정은 해미천 하류에 있었다기 보다는 양릉포에서 태안 안흥정쪽으로 갈 적에 출발하는 나루였기에 이러한 설명이 附記처럼 기록된 것이 아닐까 한다. 즉, 안흥정은 기록상 총 3개가 찾아지지만 해미천 하류 마도에 있었다는 안흥정은 제외되고 아래에서 설명할 2개만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이라 하겠다.

<표 1> 고적조에는 또 다른 안흥정이 소개되어 있다. 고적조의 내용은 사료 마)의 『고려사』 내용과 같은데 위치는 해미현 동쪽 11리라는 것만 더 첨가되었다. 이러한 내용이 <도 2, 『호서읍지』(1895년)의 해미지도>에 나타나 있는데, 오른쪽 상단에 안흥정이 표기되어 있다.

51) 윤용혁, 앞의 책, 2016, 138쪽 참고.



<도 2> 『호서읍지』(1895년)의 해미지도

현재 <표 1>의 동쪽 11리와 <도 2>에 표기되어 있는 비슷한 위치에 안흥정의 옛터와 지명이 남아 있다. 이곳은 현 충남 서산시 해미면 산수리 한서대학교 부근에 해당된다.⁵²⁾ 따라서 이 안흥정도 실제 있었던 정이라 하겠다. 이제 태안 馬島 안흥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음은 『고려도경』의 관련 내용이다.

바) 이날 유시 후에 풍세가 극히 커서 배의 항행이 나는 듯하였다. 알자섬으로부터 눈 한번 깜짝할 사이에 곧 馬島에 정박하였다. (마도는) 淸州 땅이다. 샘물은 달고 풀은 무성한데 나라 안의 官馬는 일이 없으면 여기에 몰아다 키운다. 그래서 그런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 그 主峰은 渾厚한데, 왼쪽으로 둥그렇게 꺾이고 있다. 앞의 돌부리 하나가 바다로 들어가 있어서 물과 부딪쳐 파도를 돌려보내는데, 놀란 여울물이 들끓어 오르는 것이 천만 가지로 기괴하여 말로 형언할 수 없다. 그래서 배가 그 아래를 지나갈 때는 대부분 감히 근접하지 못하는데, 그것은 암초에 부딪칠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客館이 있는데, 安興亭이라 한다. 知淸州 洪若伊가 譯

52) 윤용혁, 위의 책, 2016, 137~138쪽 ; 『한국지명총람』 4(충남편 하), 한글학회, 1974, 86쪽.

語官 陳懿와 함께 소개하며 과견되어 全州에서와 같이 예우하였다. 해안에서의 환영과 군졸의 기치는 군산도의 경우와 다름이 없었다. 밤으로 접어들어서는 큰 횃불에 불을 붙여 휘황하게 하늘을 비쳤다. 그때 막 바람이 사나워져 배 안이 뒤흔들려 거의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使者는 부축을 받아 작은 배로 상륙하였고, 상견례는 군산정에서의 예와 같았다. 그러나 酒禮만은 받지 않고 밤중에 사절의 배로 돌아왔다.⁵³⁾

사료 바)의 마도와 안흥정은 그 내용을 보건대 <표 1>, <도 1>, <도 2>에 등장한 그것과는 명확히 다른 것이었다. 사료 바)의 마도는 현재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마도인 것 같지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마도 및 안흥정 또한 그 위치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다.⁵⁴⁾ 6월 8일 유시에 서궁 일행은 마도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그 섬의 주봉은 혼후하다 즉, 크고 넉넉하다 하였다. 서궁은 대륙에서 온 사신이므로 작은 산봉우리를 혼후하다고 하지는 않았을 터이다. 이에 걸맞은 산은 그 부근에서 지령산(근흥면 정죽리, 약 210m)과 신진도의 후망봉 밖에 없다. 신진도리 마도에는 이러한 주봉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신진도리 동편의 정죽리, 또는 정죽리와 도항리는 지리적으로 섬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곳이 당시 거의 섬에 가까운 지형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위성사진 및 현지답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아마도 마도, 신진도, 정죽리 일대 등을 서궁은 마도로 기록한 것이 아닐까 한다. 마도는 1개의 섬이 아닌 무리 섬으로 설정할 수 있다 하겠다.

53) 『선화봉사고려도경』 권37, 해도4, 馬島, “是日酉後 風勢極大 舟行如飛 自輒子苦 一瞬之間 卽泊馬島 蓋淸州境也 泉甘草茂 國中官馬 無事則群牧於此 因以爲名 其主峰渾厚 左臂環抱 前一石嵒 入海激水 回波驚濤洶涌 千奇萬怪 不可名狀 故舟過其下 多不敢近 慮觸暗礁也 有客館 曰安興亭 知淸州洪若伊 遣介紹興譯語官陳懿 同來如全州禮 岸次逐卒旗幟 與群山島不異 入夜 然大火炬 熒煌照空 時風政作惡 舟中搖蕩 幾不可坐 使者扶持 以小舟登岸 相見 如群山亭之禮 惟不受酒禮 夜分還使舟”.

54) 윤용혁, 앞의 논문, 『충남, 내포의 역사와 바다』, 서경문화사, 2016, 131~151쪽 참고. 최근 마도와 안흥정은 해당 지역 사회에서 그 위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제8회 태안역사문화학술발표회, <<고려 해상갯길과 안흥정>>, 태안문화원, 2015년 11월 10일 ; ‘마도유적지 비석’ 건립, 서산문화원·서산향토문화연구소, 2018년 10월 18일).

이는 『고려도경』 群山島(전북 군산시 옥도면)를 통해서 이해가 가능하다. 송나라 사신 서공 일행이 닿았던 군산도는 선유도였다.⁵⁵⁾ 원래 군산도(현 고군산군도)는 근처 섬들을 통틀어 일컬은 지명이었다. 群山은 한데 모여 있는 여러 산이라는 뜻이다. 평지에 우뚝 솟은 곳을 산이라 하듯 바다에서도 우뚝 솟은 곳을 산이라 한다. 이곳은 마치 산이 여러 개 모여 있는 것 같아서 그 섬들을 통칭하여 군산이라 했던 것이다.⁵⁶⁾ 즉 『고려도경』 군산도는 여러 섬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그 중에서 서공 일행은 선유도에 안착했던 것이다.⁵⁷⁾ 따라서 사료 바)의 마도는 몇 개의 섬을 무리지어 부른 통칭이라 여겨진다.

서공 일행은 6월 6일 군산도(선유도)에 정박하고 김부식 등에게 접반을 받고 내려서 사행 의식 및 접대를 받았다. 당연히 이곳에서 서공은 물을 마셨을 터이다. 다음날 선유도에서 출발한 사신선은 횡서 해상에서 하루를 묵고 8일에 출발하여 자운섬, 부용산, 홍주산, 아자섬을 거쳐 8일에 마도에 닿았다.⁵⁸⁾ 서공은 순서로 보아 선유도의 물을 마셔 본 후에 마도의 물을 음미하였다. 그런데 선유도는 정박하기에는 일대에서 제일 좋은 섬이지만 물은 좋지 않았다.⁵⁹⁾ 그래서 서공은 마도 샘물이 달다고 표현하였던 것이다(泉甘). 서공은 시기적으로 더운 여름이라서 물맛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는 물맛과 관련하여 서공의 유일한 표현이었다.

마도에서 샘물이 달다 함은 그 물이 좋았다는 것이다. 서공이 작은 섬

55) 이때 실제 서공이 내린 섬은 그 묘사한 내용으로 보아 고군산군도의 선유도였다(『선화봉사고려도경』 권36, 해도3, 군산도).

56) 김명진, 「아미도·신시도의 뱃길」, 『群山夜味島III 수중발굴조사·해양문화조사 보고서』,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09, 375쪽.

57) 당시에 ‘군산도’는 무리 섬이라는 명칭과 하나의 섬만 가리키는 명칭(군산도=선유도)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58) 『선화봉사고려도경』 권36, 해도3·권37, 해도4.

59) 제보자 : 박병천(주민등록 상 이름은 박창률, 밀양 박씨 기정공파, 남 82세),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토박이, 박병천의 조상은 8대조 때 신시도에 들어 왔다고 한다. 부인 이옥희(여 78세)와 함께 신시도 집에서 구술(2009년 7월 7일). 신시도 바로 서쪽에 있는 섬이 선유도이다.

인 현 마도의 샘물을 마시고 달다고 표현하기에는 부적당하다. 마도, 신진도, 정죽리는 붙어있다 할 정도로 서로 가까이 있다. 그리고 이 일대 바다는 잘 알려져 있듯이 난행량·安興梁·관장목 등으로 불리던 바닷길이 험하기로 유명한 곳이었다. 사행항로 상 이곳에서 쉬었다가 바다의 형편을 보고 계속 항해한 곳이었으므로 정이 있기에 적당한 위치였다. 그런데 마도에 있는 객관을 00정, 즉 안흥정이라고 분명히 기술되어 있다.

정죽리에는 조선 효종 때 축성한 安興城(안흥진성, 시도기념물 제11호)이 있다.⁶⁰⁾ 이 성의 이름이 安興인 점도 예사로 넘기지 말아야 하겠다. 따라서 고려 문종 때 조영한 안흥정은 바로 현 충남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와 신진도리(마도와 신진도가 포함된)의 어느 곳에 있었다고 판단된다.⁶¹⁾

덧붙여 이곳에서 급한 용무(난행량의 해로 불량 등의 사유 포함)가 있는 송나라 사행 일행 중 일부 또는 사행을 접반하러 오는 고려 관리들이 오가면서 들르던 육로 상에 있었던 정은 해미 안흥정(서산시 해미면 산수리)이 아닐까 한다. 해미 안흥정은 태안 안흥정이 조영될 즈음에 조영되었거나, 태안 안흥정을 먼저 조영하고 그 불편함의 보완 차원에서 조영되었거나 했을 것이다. 아마도 <표 1>은 두 개의 안흥정에 대한 기술이 섞여진 것 같다.⁶²⁾

태안 안흥정이 조영될 즈음에 새로운 나루로 만들어진 곳이 新津이어서 新津島라는 섬 지명도 만들어졌다고 추정된다. 서공은 정죽리·신진도·마도 등을 통칭하여 마도라 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후대에 현 마도만이 파편화되어 그 이름이 남게 되었다고 정리해 볼 수 있다.⁶³⁾ 또한

60) 『숙종실록』 권9, 숙종, 6년 6월 23일 경진.

61) 안흥정은 단독건물, 몇 개의 건물이 분산, 또는 시기를 달리하며 근처에서 이동했을 가능성 등 여러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고려시대 태안 안흥정이 현 근흥면의 신진도리와 정죽리 일대의 어느 곳에 있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62) 두 개의 안흥정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서정석, 「태안 안흥진성에 대한 일고찰」, 『역사와 역사교육』 3·4합집, 1999, 179~181쪽이 참고된다.

63) 태안 마도와 안흥정 위치에 대해서는, 김성호, 『중국진출백제인의 해상활동 천오백년』 2, 맑은소리, 1996, 414~416쪽 참고.

해미 양릉포(마도)에서 뱃길로 닿을 수 있던 곳도 태안 마도 안흥정이라고 추정된다. 이러한 연유로 양릉포 앞 구릉에 마도 및 안흥정 관련 지명이 기록으로 남아 있게 되었던 것이다.

조선시대 해미읍성의 雉城(敵臺)은 2개였다.⁶⁴⁾ 그 치성의 방향은 해미천 양릉포쪽이다. 이는 바다에서 오는 왜적이 양릉포쪽에서 올 것을 예상한 축성이었다. 이를 보아도 정해현(해미)의 주 바다 포구는 양릉포였으며, 이곳에서 뱃길로 개경을 간다면 태안 마도 안흥정쪽을 거쳐 가야 가능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필자의 가정에 한 가지 결림돌은 사료(마)에서 이당감이 정해현 땅에 안흥정을 조영하자고 하였다 이다. 이 문제는 정죽리·신진도·마도 일대가 한때 정해현의 월경지이었다면 해결되리라 판단된다.⁶⁵⁾

월경지 문제는 먼저 앞에서 기술한 정해현이 고려 통일전쟁기 한씨의 공로로 인하여 나름 위세가 있었던 군현이었기에 무리한 설정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또한 해미현(정해현+여미현)이 地濱大海의 형승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⁶⁶⁾ 즉 땅이 큰 바닷가에 임해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현 해미면 일대 지형으로는 불가한 설명인데 정죽리·신진도·마도 일대가 정해현(해미)의 월경지였다면 가능한 표현이었다. 그런가하면 이곳의 토산물 중에 洪魚가 있었다.⁶⁷⁾ 홍어는 연해 중에서 20~80m의 깊은 곳에서 산다.⁶⁸⁾ 이는 정해현이 깊은 바다를 끼고 있어야 홍어를 잡을 수 있었다는 설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들을 두루 감안하여 정죽리·신진도·마도 일대가 당시 정해현의 월경지였다는 설정은 무리하지 않는 판단이라고 생각된다.

64) 『문화유적분포지도 서산시』, 충청남도·충남발전연구원, 1998, 261쪽.

65) 안흥지역이 당시 정해현에 소속된 飛地(월경지)였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森平雅彦, 「高麗における宋使船の寄港地『馬島』の位置をめぐって -文獻と現地の照合による麗宋間航路研究序説」, 『朝鮮學報』207, 2008 참고; 문경호, 앞의 논문, 2016, 95쪽 주82 재인용.

66)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0, 충청도, 해미현, 형승.

67)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0, 충청도, 해미현, 토산.

68) 정문기, 『韓國魚圖譜』, 일지사, 1977, 92쪽.

요컨대 고려시대에 송나라 사신 영송을 위한 안흥정은 두 개였던 것이다.

V. 맺음말

고려시대에 使臣을 迎送하기 위한 客館이 운영되었는데, 그 위치에 대한 논란이 많은 곳이 安興亭이다. 客舍는 고려와 조선시대에 각 고을 및 도성에 둔 일종의 官舍였다. 흔히 이 건물은 客館이라 칭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고려시대 객사와 객관은 구별이 있었다. 지방의 각 고을 객사는 대개 공적인 업무를 본 국내 관리들이 머무르던 곳이었다. 객사는 主縣 뿐만 아니라 屬縣까지도 건립되어 있었다. 외국 사신들이 오가는 길목 및 개경(송악, 개성)에는 그들의 영접 및 숙박을 위한 객관이 있었다. 사신 영접을 위한 객관은 ‘00亭’으로 불리어지기도 하였다.

고려는 외국 및 외세와 통교함에 육로와 해로를 이용하였다. 각 나라 별로 사절이 이용한 교통로는 달랐다. 거란(요)·여진(북변, 제변, 번인, 말갈, 금) 등 북방민족과 고려가 통교할 적에 주 교통로는 육로였다. 5대 10국과 송나라가 고려와 통교할 적에는 해로가 주로 이용되었다. 그런데 고려 전기에 육로는 한정되어 있었고 해로가 빈번하게 제 역할을 하였다. 安興亭은 해로 이용 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외국 사신을 위한 ‘맞이방’ 중 하나였다.

고려 전기에 중국과 통교한 해상항로는 주로 2가지 노선이 있었다. 그 하나는 수도 개경(개성) 인근인 예성강 일대에서 산동반도로 향하는 북선향로이고, 또 다른 하나는 長江(揚子江)으로 향하는 남선향로가 있었다. 태조 왕건이 통일을 완성한 후에 중요한 使行은 주로 북선향로가 이용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중원의 주인은 송나라가 차지하였고 처음에는 사행항로에 큰 변화가 없었으나 11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변화가 왔다. 남쪽에 있는 明州(절강성 영파)가 고려와 송나라 사신 왕래의 새로운 경유지로 부상되었다.

1074년(고려 문종 28)에 고려가 사행항로를 남선항로로 바꾸고 싶다고 요청하니 송나라에서도 동의했다고 한다. 이는 당시 거란의 압박이 고려와 송나라 양국 교류에 영향을 크게 미쳤기 때문이었다. 예성강과 명주로 향하는 정확한 노정은 고려 측 자료에는 남아있지 않고 송나라가 남긴 자료만 하나 전해지고 있다. 徐兢이 지은 『선화봉사고려도경』이 그것이다. 송 휘종은 고려에 대규모 사신단(國信使)을 보냈다. 이 사신단에 포함된 사람이 서긍이었다.

서긍 일행이 명주에서 출발한 날짜는 1123년(고려 인종 1) 5월 16일이었다. 고려 측 영역 안 사행항로는 협계산에서부터 예성강의 예성항까지였다. 그 해상 노정에 송나라 사신을 맞이하기 위한 대표 맞이방은 群山亭·安興亭·慶源亭이었다. 그리고 흑산도에도 관사가 있었는데 그 정확한 명칭 및 성격은 알 수 없다. 사신단이 예성항에 도착하면 그곳에 碧瀾亭이 있었다. 또한 중간기착지 중 하나인 안흥정이 있기 전에 그 역할을 했던 곳은 고만도에 있었던 정이었다.

안흥정은 현 충남 태안군 근흥면과 현 충남 서산시 해미면에 있었다고 한다. 두 개의 안흥정이 있었다고 하니 연구자들의 혼선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런데 고려시대에 지명 및 건물 이름이 두 개인 경우가 여러 사례 발견된다. 따라서 같은 이름인 안흥정이 두 개 있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었다.

한편, 고려 통일전쟁기에 마지막 판세를 결정지은 전투가 934년 9월의 운주전투(충남 홍성)였다. 여기에 큰 공을 세운 이가 몽양역의 韓氏였다. 이로 인하여 태조 왕건이 그에게 대광의 호를 내리고, 고구현의 땅을 나누어 貞海縣(충남 서산시 해미면)을 설치하여 그의 관향으로 삼게 하였다. 이처럼 한때 정해현의 위세가 있었다. 이러한 정해현의 내력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안흥정 위치에 대한 혼란스러움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였다.

1077년 8월에 대부소경 이당감이 羅州道 祭告使의 임무를 수행하고 난 후에 국왕 문종에게 보고하였다. 이당감은 사행항로를 살펴보니, 다른 문제는 없는데 천수만 입구 고만도의 정만 불편하다고 하였다. 정해

현의 땅에 새롭게 정을 조영하자고 했는데 바로 안흥정이었다. 이 글에서 안흥정은 두 개가 조영되었다고 설정하였다.

두 개의 안흥정 중에서 그 하나는 안흥정의 옛터와 지명이 남아 있는 현 충남 서산시 해미면 산수리 한서대학교 부근에 있었다(해미 안흥정). 또 다른 하나는 현 충남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및 마도가 포함된 신진도리 일대에 있었다(태안 안흥정). 당시에 서공은 馬島 · 신진도 · 정죽리 일대를 무리 섬인 마도로 인식하였다. 그는 마도를 1개의 섬이 아닌 무리 섬의 통칭으로 기록하였다.

그런데 이당감이 마도 · 신진도 · 정죽리 일대도 정해현이라 칭한 것은 이곳이 정해현의 월경지이기 때문이었다. 이는 정해현이 고려 초부터 가지고 있었던 위세로 보아 가능한 설정이었다. 덧붙여 태안 마도 안흥정에서 급한 용무(난행량의 해로 불량 등의 사유 포함)가 있는 송나라 사행 일행 중 일부 또는 사행을 접반할 고려 관리들이 오가면서 들르던 육로 상에 있었던 또 다른 정은 해미 안흥정이었다.

요컨대 고려시대에 송나라 사신 영송을 위한 안흥정은 두 개였던 것이다.

※ 이 논문은 2019년 8월 7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9년 8월 26일부터 9월 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9년 9월 6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1. 기본사료 및 자료

『삼국사기』, 『고려사』, 『고려사절요』, 『신증동국여지승람』, 『숙종실록』, 『대동여지도』, 『호서읍지』(1895년)

『구오대사』, 『선화봉사고려도경』, 『송사』

『한국지명총람』 4(충남편 하), 한글학회, 1974.

『문화유적분포지도 서산시』, 충청남도·충남발전연구원, 1998.

최정환, 『譯註『高麗史』百官志』, 경인문화사, 2006.

2. 논문

김명진, 「太祖王建의 一利川戰鬪와 諸蕃勁騎」, 『한국중세사연구』25, 2008.

김명진, 「아미도·신시도의 뱃길」, 『群山夜味島Ⅲ 수증발굴조사·해양문화조사 보고서』,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09.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아산만 일대 공략과정 검토」, 『지역과 역사』30, 2012.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質子政策에 대한 검토」, 『한국중세사연구』35, 2013.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운주전투와 공준의 역할」, 『軍史』96, 2015.

김명진, 「고려 태조대 천안지역의 사상적 동향과 사찰의 역할」, 『한국중세사연구』48, 2017.

김명진, 「고려시대 천안지역의 왕실불교」, 『국학연구』34, 2017.

문경호, 「1123년 徐兢의 고려 항로와 慶源亭」, 『한국중세사연구』28, 2010.

문경호, 「1123년 서긍의 고려 항로에 대한 재검토 -夾界山~馬島 安興亭 구간을 중심으로」, 『역사와 담론』78, 2016.

서정석, 「태안 안흥진성에 대한 일고찰」, 『역사와 역사교육』3·4합집, 1999.

신안식, 「고려전기의 麗宋 교통로와 교역」, 『한국중세사연구』33, 2012.

윤용혁, 「고려시대 서해 연안해로의 객관과 안흥정」, 『역사와 경계』74, 2010.

이진한, 「高麗 太祖代 對中國 海上航路와 外交·貿易」, 『한국중세사연구』33, 2012.

森平雅彦, 「高麗における宋使船の寄港地‘馬島’の位置をめぐって -文獻と現地の照合による麗宋間航路研究序説」, 『朝鮮學報』207, 2008.

3. 단행본

김명진, 『통일과 전쟁, 고려 태조 왕건』, 혜안, 2018.

김성호, 『중국진출백제인의 해상활동 천오백년』2, 맑은소리, 1996.

윤용혁, 『충남, 내포의 역사와 바다』, 서경문화사, 2016.

정문기, 『韓國魚圖譜』, 일지사, 1977.

Abstract

A Review of Kaekgwan Anheungjeong during the Goryeo Era

Kim, Myeong-jin

During the Goryeo era, Kaekgwans were operated for receiving foreign envoys. One of them was Anheungjeong, whose geographical location remains controversial. In 1074, the Goryeo government sought the Song Dynasty's opinion as to shifting to a southern sea route from the existing one that had been available for use by envoys. The Chinese Song government responded positively to the idea. Anheungjeong was constructed sometime after August 1077. The accurate sea route between Yeseonggang of Goryeo and Myeongju of Song is documented in Goryeodogyeong. In 1123, Anheungjeong, located on or around that sea route, was one of the guest houses for receiving foreign envoys. Seo Geung, an envoy from the Song Dynasty, recognized areas of Mado, Sinjindo, and Jeongjukri as Mado, a group of islands. This paper establishes that back then, there were two Anheungjeongs (Haemi Anheungjeong and Taeon Anheungjeong) and that the Taeon Anheungjeong region was an Flying Land of Jeonghae-hyeon.

keywords

Kaekgwan, Anheungjeong, Seo Geung, Mado, Two Anheungjeongs, Flying Land